



일본금융청, 국제회계기준 2017년 이후로 도입 연기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금융청 장관은 6월 21일 각료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2014회계연도부터 상장기업들에 강제 적용하기로 했던 국제회계기준(이하 IFRS) 도입에 대해 연기방침을 발표함.
 - 일본금융청은 IFRS 도입을 위해 최초에 계획했던 2011년부터 3년간의 준비기간을 5~7년 정도로 늘린다는 연기방침을 정함으로써 IFRS 도입은 2017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.
- 일본금융청이 2009년 당시 IFRS 도입을 결정하였던 것은 일본이 국제회계기준 통일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로부터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됨.
 - 그러나 인도가 IFRS 도입을 연기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자국 회계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, 결정적으로 지난 5월 미국 증권거래소(SEC)도 IFRS 도입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에서도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확대됨.
 - IFRS 도입 연기방침의 가장 큰 이유는 IFRS를 시행할 경우 일본 기업들의 수익관리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이며, 특히, 최근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도입 시기를 늦춰달라는 기업들의 요청도 많았기 때문임.
 - 일본 국내 대형기업의 한 임원에 따르면 기업 인수합병(M&A)에 유용한 IFRS가 기업의 수익을 관리하는 데 다소 불편할 뿐 아니라 일본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에 IFRS가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밝힘.
- 이에 따라 일본금융청은 6월 30일 기업회계심의회를 열어 적용시기 연기뿐만 아니라 상장기업 모두에 적용할지 여부 등의 적용방침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예정임.
 - 한편, 도쿄증권거래소 사장은 6월 21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거한 기업가치 평가가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회계기준 통일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냄. (마이니치신문 6/21, 산케이신문 6/21, 일본경제신문 6/22, 아사히신문 6/22)